

# “전남-경남 해상경계 사수” 여수 시민 상경 투쟁

오늘 현재 쟁의심판 변론 앞두고 32개 어민단체 국회에서 호소 주철현 의원 동참...기각 촉구 권오봉 시장도 현재 앞 1인 시위



권오봉 여수시장(가운데)이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수 어민들과 함께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여수 32개 어민 단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주철현(여수 갑)의원과 전남도-경남도 현행 도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 변론을 앞두고 여수 지역 어민들과 정치인들이 상경 투쟁을 통해 해상 경계선 지키기에 나섰다.

여수수산협회 등 32개 어민 단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과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전남어업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어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주철현 의원은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한 뒤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권 시장은 "전남도와 경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어민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가 해상경계선인 도 경계선이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

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 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전남 어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양)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학사, 서울 대림동에 새 등지



구례군의 인재 양성 요람인 구례학사(사진)가 서울시 대림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서울에 운영 중인 구례학사를 기존 강서구 화곡동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이전했다.

대림 구례학사는 대지 416㎡, 연면적 1481.09㎡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지하철 2호선·7호선 대림역에서 도보로 7분,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원룸형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싱크대, 전자레인지, 침대, 책상, 의자, 욕실 등 대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입사정원은 1인 1실 24명으로 기존 입사생 외 10명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곡성군, 순국선열 기리는 녹색쌈지숲 조성

보훈회관 부지에 무궁화 등 심어

곡성군은 보훈회관 건물 부지 내 숲은 자투리땅을 활용,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혼이 깃든 '녹색쌈지숲' (사진)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숲에는 100일 동안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무궁화, 소나무 등 7종 교목 60주, 수수꽃다리 등 4종

관목 3383주, 기타 화초류 7천 170본 등을 심었다.

곡성군은 2021년 도시 숲 조성 공모사업에 미세먼지차단 숲 외 5개 사업이 선정돼 4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양한 숲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포스코청암재단, 지역 대학생들에 긴급생활장학금 지급

다음달 200명에 100만원씩

포스코청암재단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포항지역 가정 대학생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With POSCO 긴급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

With POSCO 긴급생활장학금은 포스코청암재단이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생활장학금 성격으로 많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광양·포항지역 대학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을 당해 가정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졌거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어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다. 선발인원은 200명 규모이며 선발된 학생들은 1인당 100만원의 학비보조금을 8월

중 지급받게 된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오는 15일 선발공고를 시작으로 7월 30일까지 2주 동안 접수된 신청자를 심사해 8월중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포스코청암재단 홈페이지(www.postf.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선발공고문에 안내된 구비서류와 함께 재단 담당자 메일(withposco@postf.org)로 보내면 된다.

포스코청암재단 김선숙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생활장학금을 준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에 입각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어려운 환경의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군, 돌봄 로봇 500개 보급

산자부 공모 선정...연말까지

'고흥군은 8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돌봄 로봇 인형을 보급하는 '로봇기반 고령 어르신 생활밀착 케어서비스'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고흥군은 올해 말까지 국비 1억4000만원 등 2억 원을 투입해 돌봄 로봇 인형 5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돌봄 로봇 인형은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 또한 버스배차, 날씨 안내 등 지역 생활 정보도 안내해 위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으로 치매 예방 수업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느낀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갖췄다.

고흥군은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노인 취약계층을 선정해 로봇을 보급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